

자동차 및 의료이용량 변화와 손해보험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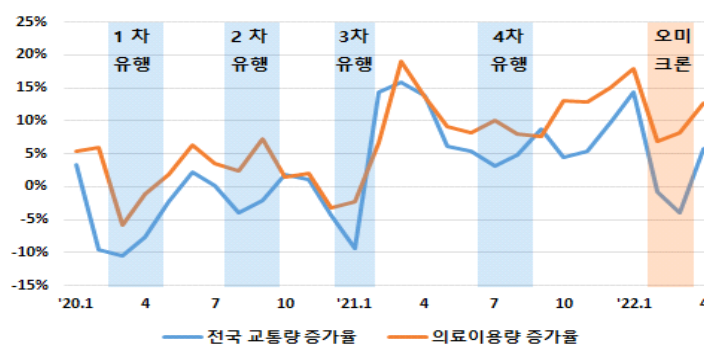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요약

자동차 운행량과 의료이용량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유행기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 둔화 후 과거 추세로 회귀하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 왔음. 그러나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자동차 운행량 둔화효과로 크게 하락한 반면, 질병상해보험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의료이용량 둔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함. 이는 의료이용 중 사적보험으로 보장되는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이연 소비 또는 이연공급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됨

- 자동차 운행량과 의료이용량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 둔화 후 과거 추세로 회귀하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 왔음
- 의료이용량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자동차 운행량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코로나19 1~4차 유행기간(2020년 2~4월, 2020년 8~9월, 2020년 12월~2021년 1월, 2021년 7~8월) 동안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가 유행 이후 회복되는 양상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상관계수 0.81)

〈그림 1〉 전국 교통량과 의료이용 카드 사용량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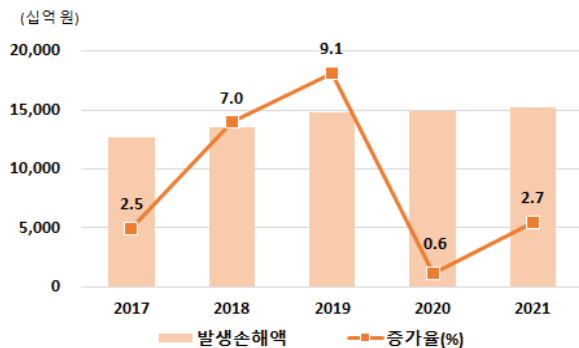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그러나 2020~2021년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자동차 운행량 둔화효과로 크게 하락한 반면, 질병상해보험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의료이용량 둔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같은 기간 손해보험 수익성에도 상반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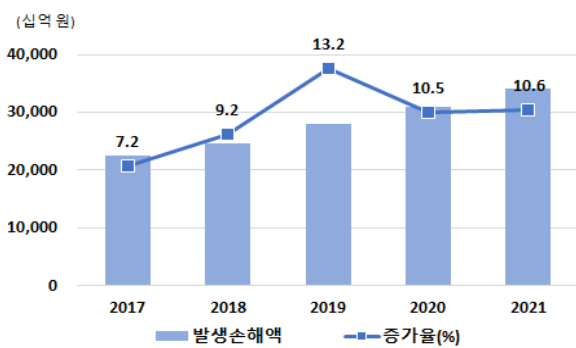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2020년 0.6% 증가에 그친 후 2021년에도 2.7%로 낮은 수준의 증가에 그쳤고,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한 현상과 일치함
- 그러나 질병상해보험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발생손해액 증가율이 각각 10.5%, 10.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의료이용량 감소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임
-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2019년 2.2조 원에서 2020년과 2021년 2.6조 원, 4.3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보험영업 손실이 각각 1.7조 원, 1.8조 원 개선된 것이 당기순이익 증가에 기여함
- 2020년과 2021년 상장 손해보험회사들의 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영업 수익 개선 요인으로 자동차 사고 감소 및 보험료 인상 효과에 따른 손해율 하락이 언급되고 있지만, 질병상해보험은 오히려 손해율이 상승한 것으로 지적됨

〈그림 2〉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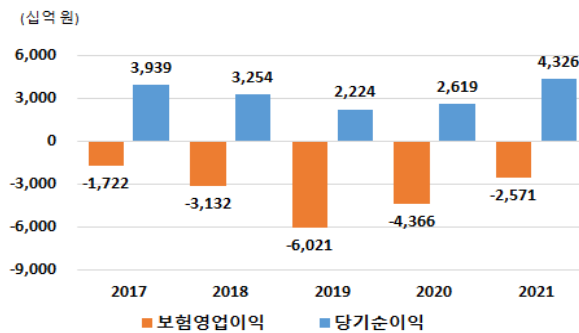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3〉 질병상해보험 발생손해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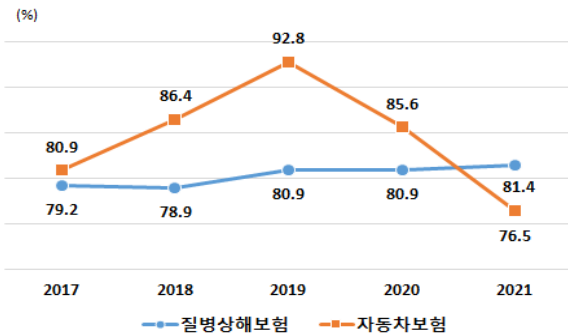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4〉 손해보험 보험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5〉 손해율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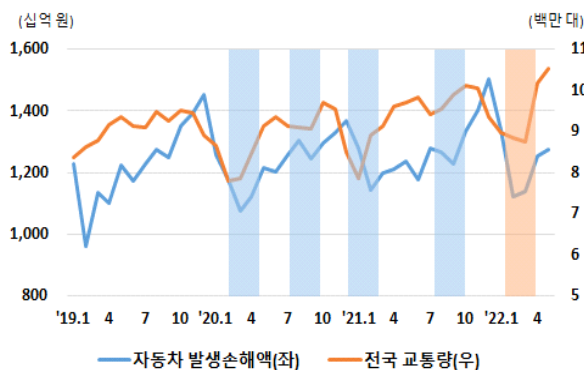
- 2020~2021년 기간 동안 월별 질병상해보험 발생손해액은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과 달리 코로나19 유행 시기 직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미루었던 의료이용이 보험의 보장을 받는 의료이용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발생손해액 감소폭을 모두 상쇄하는 모습임

- 질병상해보험 발생손해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폭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미루었던 의료이용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보여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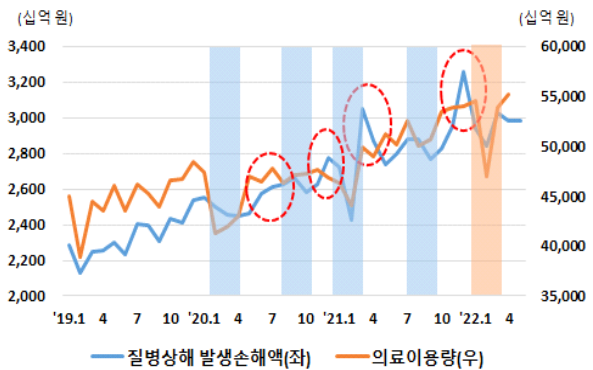
- 이러한 의료이용 증가는 소비자의 이연소비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이연공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모두 존재함
- 2021년 말 의료이용량은 2019년 말에 비해 12.3%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질병상해보험 발생손해액은 22.2% 증가하였고, 이는 동기간 전국 교통량과 자동차 발생손해액이 각각 3.9%, 3.3% 증가한 것과 대비됨
- 실제로 2020~2021년 질병상해보험의 연간 발생손해액 증가율이 자동차보험에 비해 둔화 정도가 미미한 이유도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진 시기 미루었던 의료 이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연간 변동성이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그림 6〉 자동차보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그림 7〉 질병상해보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코로나19 확산 시 자동차 운행량 및 의료이용량 변화가 손해보험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자동차 및 의료이용량에 대한 단기적 충격은 자동차보험 수익성 개선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남

-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⁶⁾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했을 때에도 보험료에 대한 조정은 없기 때문에 운행량 감소로 인한 발생손해액 감소가 손해보험회사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한편 2022년 4월부터 시작되는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제도⁷⁾는 코로나19와 유사한 충격 발생 시 자동차보험 수익성 변동을 억제할 것으로 판단됨
- 모든 개인용자동차보험 운전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경우 운행량 감소가 보험료 환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행량 감소로 인한 발생손해액 감소뿐만 아니라 보험료 수입 또한 축소하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될 것임

○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자동차 운행량 및 의료이용량과 같은 개인의 활동성 변화가 직접적인 수익성 변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충격이 어떤 경로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음

6)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가적 보험료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20년 기준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1,724만 명) 중 548만 명(약 32% 수준)이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3. 28),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